

광주의 심장 충장로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충장22'가 문화예술 거리로의 재도약을 꿈꾼다.



▶ 복합문화공간 '충장22' 전경

문화플랫폼 '충장22' 시민 문화공감의 장

과거 명성과 시민들의 젊은 날 추억을 간직한 충장로 일대는 현재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상권 위축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상인들은 자생적 노력으로 추락한 상권 이미지를 회복하고, 광주의 새 역사를 다시 충장로에 담기 위해 재건 의지를 모으고 있다.

이에 충장22의 새 위탁기관으로 나선 (사)대동문화재단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재정비해 충장로 일대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시민문화마당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충장로 활성화'라는 과업을 안고 공공성, 연계성, 공간성, 확장성을 바탕으로 문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며, 장소적·역사적 가치를 담은 스토리텔링과 특성화된 시민 프로그램으로 충장22를 브랜드화한다.

이를 위해 충장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오랜 노포들과의 협업, 충장권 구축을 위한 르네상스 사업단 연계 사업을 펼친다. 관련 기관과의 콜라보, 공유공간 확장을 위한 시민참여, 열린스튜디오

(사)대동문화재단 위탁 기관 선정...충장로 발전 견인 나서 지역 예술인 창작레지던시 강화, 전시·공연·강연 등 '다채' 오늘 비전 선포식 및 예술공연 개최·청년 참여 부대행사도

오 창작자와 상인들의 노력도 잇따르고 있다.

지하 1층과 지상 4층 규모의 충장22는 다목적 전시공간을 비롯해 지역 예술가들을 위한 22개의 레지던시 공간으로 구성된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을 지원할 예정이다. 업무공간, 전시공간, 공연 예술공간, 교육·강연 공간, 시민쉼터, 카페, 유틸리티 등을 갖추고 있으며 이



'충장22' 1층에 마련된 시민 휴식공간

에 따른 공유공간 활성화에도 나선다.

전시장은 갤러리 충장스토리움과 갤러리 카페로 리모델링해 개설한다. 아울러 공연, 영화, 미디어아트 공간도 마련된다. 주제와 계절에 따른 단체 기획전 및 개인전을 준비하고 있으며 버스킹, 야외공연 등 다채로운 브랜딩 공연도 상설화한다.

아울러 인문학적 교양강좌 등을 통

해 청소년, 중장년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건물 위층에 마련된 루프탑 테라스와 충장하늘 공원은 도시형 캠핑 등 계절별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8일 오후 4시에는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충장22 비전 선포식 및 축하공연도 열린다. 이날 자리에서는 판소리 명창 김향순의 공연을 비롯해 영원한 관객 정유주 씨의 무대, 빛고을영무장농악단의 판국 공연, 무등종합예술단의 난타와 북춤, 창작무용, 패션쇼, 설장구 무대가 펼쳐진다. 공예 플라마켓, 대학생들의 어반 스케치 전시, 청년미술제 등 부대행사도 열린다.

윤병학 충장22문화사업단장은 "시민복합문화예술 플랫폼 충장22가 다양한 주제들의 문화공감의 장으로 역할하며 충장상권의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문화예술 거점공간의 창조적 가치 실현을 위해 예술을 잇는 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이숙경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휘트위스 미술관장 선임

맨체스터 대학 명예교수로도 활동

이숙경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이 맨체스터 대학의 휘트위스 미술관장으로 선임됐다.

(재)광주비엔날레는 이 예술감독이 맨체스터 대학 휘트위스 미술관(The Whitworth Art Gallery)의 수장으로 선임됐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테이트모던 국제 미술 수석 큐레이터로 있는 이 예술감독은 영국 맨체스터 대학 내 휘트위스 미술관에 합류하게 된다. 임기는 오는 8월 시작되며, 동시에 트랜스컬처 큐레이팅 명예교수로도 활동한다.

맨체스터 대학 내 부설 미술관으로 1889년 설립된 휘트위스 미술관은 6만5천점의 컬렉션을 보유, 지역 사회 및 글로

벌 커뮤니티 경험을 탐구하는 전시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문화예술기관이다.

휘트위스 미술관 측은 이 선임 관장의 선임 배경에 대해 "테이트모던에서 재직하는 동안 '백남준 회고전' 등 여러 주요 전시를 기획했으며 테이트 국제미술 수집 전략을 형성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며 "2019년 대규모 연구 프로젝트 '현대 테이트 리서치 센터

트랜스내셔널' 수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2021년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으로 선정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숙경 예술감독은 "영국에서 가장 혁신적이며 관객 중심적 예술기관 중 하나인 휘트위스 관장직을 맡게 돼 큰 영광이다"며 "문화예술의 사회적 영향력을 더욱 발전시키고, 국제 관계를 더욱 넓히고 싶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김선희라온예술단의 '애환' 공연 모습

<광주무용협회 제공>

'김선희라온예술단' 광주무용제 대상

안무 김선희, 연기상 김시원 선정 10월 '전국무용제' 광주 대표 출전



심사위원들은 작품 '애환'에 대해 "무용제 특성에 맞게 장마다 안무자의 의도에 맞는 작품 줄거리가 있고, 무용수들의 감정 표현과 춤 기량이 우수하다"며 "구성 또한 새로우며 작품 내용이 관객에게 잘 전달됐다"고 평했다.

제32회 광주무용제에서 김선희라온예술단(안무가 김선희·사진)의 작품 '애환(哀煥)'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사)대한무용협회 광주지회(광주무용협회)는 7일 "제32회 광주무용제 및 전국무용제 광주시 예선 대회에서 '김선희라온예술단' 작품 '애환'이 대상, 김시원 무용수가 연기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상을 수상한 김선희라온예술단의 작품 '애환'은 고려 귀주대첩의 숨은 영웅 '설죽화' 이야기를 다룬다.

'설죽화'는 고려 병사들의 선봉에서 거란의 침입을 물리친 여자장수다. 역사서에 기록돼 있지는 않으나 지금도 구전으로 전승되는 인물이다. 한국의 단아하고 일찍이 그녀는 그녀가 일궈낸 값진 성취를 춤으로 나타냈다.

나인숙 광주무용협회장은 "그동안 광주 대표팀은 전국무용제에 출전해 대통령상과 그 외 다수의 상을 수상했다"며 "작품성과 실력을 갖춘 광주대표팀 '김선희라온예술단'이 제32회 전국무용제에서 좋은 결과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32회 전국무용제는 '동북아 중심도시 창원, 춤으로 미래를 열다'라는 슬로건으로 오는 10월5일부터 14일까지 창원 성산아트홀, 3·15아트센터 등 귀남 값진 성취를 춤으로 나타냈다. /최명진 기자

'평안·번창 기원...남도성주굿'

10일 남도국악원 박영태·이장단 초청 공연

국립남도국악원은 오는 10일 오후 3시 대극장 진악당에서 부부세습무가 박영태·이장단 초청공연을 개최한다. 전라도 세습무가인 박영태·이장단이 준비한 '남도성주굿'은 집안의 평안과 번창을 위해 성주신(집을 지키는 신)에게 비는 굿으로, 보통 집을 새로 지어 입주하거나 이사를 할 때 지낸다. 굿은 상황과 목적에 따라 거리가 확대돼 연행되기도 한다.



남도성주굿 공연 모습 <국립남도국악원 제공>

이번 굿은 신에게 굿을 하는 이유를 아뢰고 가족의 재수를 축원하는 '인당'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이어 조상과 여러 신들을 굿판에 자리하게 하는 '선부리', 집안을 수호하는 '성주신'과 집터를 관장하는 '지신'은 성주신과 집터를 관장하는 지신을

맞이해 가정이 번창하기를 기원하는 '성주굿'을 선보인다.

또한, 아기를 점지하는 삼신할머니에게 자손들의 건강과 재수를 기원하는 '지암맞이'와 굿을 마무리하는 '종천'까지 연행한다. /최명진 기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원지국 955-0451
- 광산지국 944-0993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무안지사 061)453-3645
- 할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